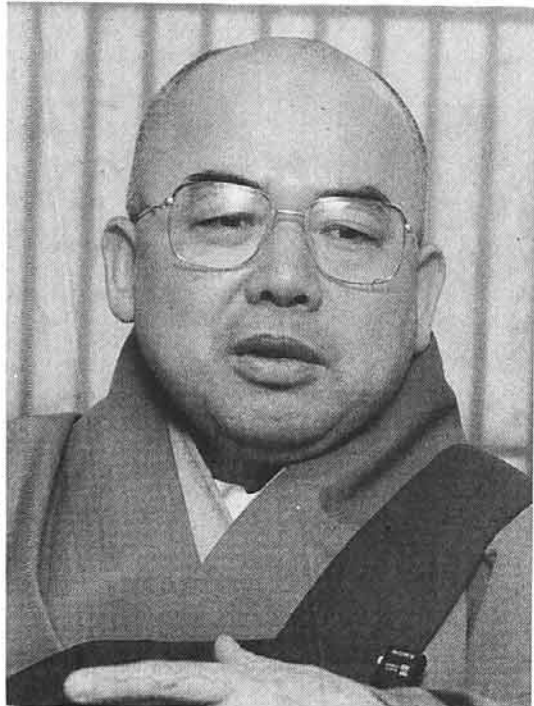


수요 인터뷰

“교육체제 확립 사회이끌 인재양성에 최선”

“10대사업 전개 포교혁신의 길 닦을 터”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

<약력>
· 1944년 7월 23일생
· 63년 통도사서 경봉대선사를 은사로 득도
· 84년 관음대강백으로부터 전강 받음
· 84~89년 직지사·통도사 승가대 강주 역임.

교육기관 정비
역경사업
승려 재교육 강화

“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사업에 전담할 교육원에 사부대중의 기대가 큰 만큼 모든 업무를 통괄하시게 될 원장스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종단의 흥망, 나아가 불교의 성쇠가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원 소임자들이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45년동안 8만4천 법문이라는 깨달음을 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부대중이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믿고 바로 알아야 바른 실천이 따릅니다.

불교가 사회의 향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자 개개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가르침을 전해 모든 종도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 불국토 실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정혜승수 요익증생 정토구원을 3대 지표로 삼고 교육

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종단 교육기관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행자 교육원이나 재교육기관인 중앙연수원의 교육도양 상설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행자교육원을 거처된 중앙승가대나 지방승가대 또는 기초선원에 갈 수 있습니다. 행자들중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입산한 행자의 60%가 지방승가대를 지원합니다. 고교 졸업 행자들은 중앙승가대를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런데 행자중에 경전보다는 선을 공부하겠다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수를 하는 곳이 기초선원입니다. 화림, 율원, 승가대학원, 선학연수원은 전문 대학원 과정인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법계고시를 보아 주지가 된다든지 각종 소임의 자격을

▲행자교육원을 거처된 중앙승가대나 지방승가대 또는 기초선원에 갈 수 있습니다. 행자들중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입산한 행자의 60%가 지방승가대를 지원합니다. 고교 졸업 행자들은 중앙승가대를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런데 행자중에 경전보다는 선을 공부하겠다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수를 하는 곳이 기초선원입니다. 화림, 율원, 승가대학원, 선학연수원은 전문 대학원 과정인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법계고시를 보아 주지가 된다든지 각종 소임의 자격을

한국불교의 사활이 걸려있는 교육과 포교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할 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이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개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개역종단이 총무원 기구를 개편하면서 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과 포교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각 독립 법인화시킨 교육원·포교원의 수장인 교육원장 원산스님과 포교원장 정락스님을 만나 두 원이 앞으로 해나갈 사업등 전반적인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일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중앙연수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연수원은 중앙승가대가 급성사로 이전하면 그 곳을 활용하거나 서울근교의 넓은 부지가 있는 사찰을 정해 교육장으로 쓰려고 구상중입니다. 우선 오는 2월말경부터 본사주지 종단 간부들을 대상으로 승려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엔 원장스님도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지방승가대의 강주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신 것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전통승가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무엇입니까.

▲강사진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본원에서 교학연구의 체계와 발전을 위한 불학연구소,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교육위원회, 종단 교육기관의 교재 편찬 및 각종 출판물을 감수·편수하는 교재편찬위원회 불전번역을 관장하는 역경위원회를 각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아오고 교육에 관심많은 스님들을 교문과 각 위원으로 모신만큼 자주 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 모색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방승가대와 시설기초를 마련하여 미달되는 것은 폐교 및 통합할 하는 등 교육의 효율을 기하고 강사·교재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계제도(승가고시제) 실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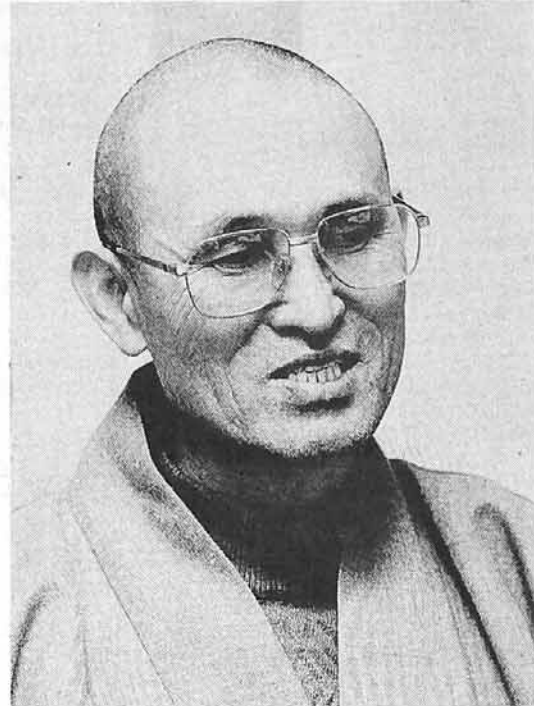
▲교육이 확실히 체계가 잡혔을 때 법계제도가 순조롭게 실시될 것입니다. 종법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미련 없는 총무원과 의논해 곧 통령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중앙승가대 이전 제안미련등 사급해결할 과제도 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 듯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전 종도들이 동참의식을 가질 때 예산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번뇌가 깨달음의 씨앗이듯 예산문제등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진흥이라 생각하고 뜻뜻하게 이겨 나가겠습니다.

<이경숙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스님



<10대사업>

- 신행혁신
- 포교10년 청사진 마련
- 포교사교시 실시
- 설법교안 발행
- 신도교재 개발
- 사찰 신도회장 교육
- 문화예술인 연수
- 포교이론 연구
- 본사 포교국장 연수
- 통일법요집 편찬

<약력>
· 1939년 충남 천안 생
· 59년 홍복사서 전강스님 계사로 득도
· 79년 제5대 중앙종회의원
· 81년 홍주사 수원포교당주지
· 82~89년 포교원 상임포교사

수포교사업에 투입하여 포교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일반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다문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교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연히 미래불교를 대비해 포교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포교원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10개년계획으로 포교종합청사진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포교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일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자는 불법을 흥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수행을 하면서 포교를 담당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포교활동을 펼칠 때 앞으로의 포교는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또한 포교원은 모든 종도들이 포교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여건미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기자>

연구비 3천1백만원, 산학단체육성지원비 3억7천만원 등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금번 포교원 예산은 연구실 연구비와 산학단체육성지원비가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포교원은 그동안 3천6백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포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교원이 법사대기소라는 별칭까지 듣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포교사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포교사들의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교도소 장애인 군법당 어린이등 특수지역에는 법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교사들을 최대한 이들 특

신임원장 정락스님은 포교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한달이면 보름이상을 설법차 전국을 다니는 스님은 84년 포교원 연수부장을 맡으며 포교원과 인연을 맺은 이후 줄곧 상임포교사로 일선에서 활동해 왔다.

스님은 비교적 온화한 인품으로 주위사람들을 이끌며 많은 일에 있어서는 완벽을 추구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스님은 20일 조계사에서 취임법회를 갖고 금년을 ‘신행혁신의 해’로 선포했다. 포교를 통한 신행의 개혁을 주창한 것이다.

—그동안 포교원이 총무원 산하에 있다보니 제약함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혁과정에서 교육원과 함께 별도로 독립되어 명실상부한 삼원체제를 이루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산·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한 것 자체가 곧 혁신적입니다. 포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 제약함을 발휘하도록 의견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속된 강장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의 포교원이 제약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교원 독립으로 많은 힘이 주어졌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거듭 태어난다는 의미가 큼니다.

—포교원의 역할은 교계반면에 걸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포교원 별원 원년을 맞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포교의 목적은 불법을 전해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교원은 금년에 10대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올해 포교원의 중심과제인 ‘신행혁신’을 위해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제작·사찰·가정, 신도모듬반가, 신도회가입하기, 경전읽기, 참회하기, 선행하기 등의 6대 실천덕목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마침 현대불교신문에서도 ‘95 신행캠페인’으로 참불자운동을 펼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제114회 정기중앙총회서 포교원 예산으로 11억4천6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

▲전반적으로 자료집 출판과 연수 교육 조사분야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먼저 자료관찬비로 2억5천4백만원, 연수교육비 1억5천9백만원, 포상비 및 해외포교지원비 4천만원, 연구실



1995. 송강 기획은?

송강 기획은 불음 보급자로서 겸허한 자세와 자부심을 견지하며 포교 불사의 원력을 키웁니다.
송강 기획은 오직 영상 및 음성 포교 자료만을 고집하며, 혼재된 불교 유통 관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전문 유통에 힘씁니다.
송강 기획은 양질의 포교 자료 제작에 협력하며, 제작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작된 포교 자료의 신속한 보급에 정열을 바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족적을 따르며 친 인간으로서의 80살을 조영하고 일으키는 생애의 유적지의 종교성과 역사적 가치를 추적하여 불교의 철학, 실과 죽음의 본질 등 보다 크고 거룩한 부처님의 대지비상을 영상화한 정품 다량본이다.
VHS 60분 x 2장, 값 30,000원



경북대선사 범어집
경봉스님의 시지였던 영장스님에 '노사의 법문을 청명하게 세 번 들으면 틈새대로의 수월결간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성취하여 내오실 지한 눈앞은 사상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권하신 경봉스님의 육상법문
CAO x 1078입, 해제 특1권 권공 인
책면 1매, 값 50,000원



산사의 향기
1,600년 한민족 불교 문화의 깊은 향기가 감동 영상 음악의 길이 있는 신율과 뛰어난 영상으로 어울어진 한민족의 감동사. '94 대한민족 영상 음악 대상 금동 비디오 대상, 금상 비디오 감독상 수상작
VHS 50분 x 1장, 값 20,000원